

무애원 전통문화연수원 건립

“불교와 예술혼 느껴보세요”

참선·도예 실수...청소년 예절·놀이지도

매달 청소년 2천여명이 불교 전래놀이 예절 언어순화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곳. 또 정기적으로 1박 2일간 '이동명의 날'을 정해 군불자들에게 불교문화의 포근한 맛을 느끼게 하는 곳.

강화 무애원(주지 설봉)은 수련원, 교육관, 도예원, 전통 도예가마 등 갖춘 전통문화연수원을 건립하고 있다. 5천평의 부지에 현재 1백 50평규모의 강당과 숙소 등을 갖춘 교육관이 이미 완공됐으며, 50평의

전통가마와 2백평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복사도 막 끝마친 상태다.

특히 1백50평의 수련원과 1백평의 도예원건물은 설봉스님이 주변에 버려진 석재를 직접 쌓아 예술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건물 표면에는 도자기를 전시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둘러보는 주변경사로 부각됐다.

무애원은 법당 및 운동장을 마련하고 1차 공사가 마무리된 9월부터 2백평을 수용할 수 있는 90평의 요사채와 1천평 수용규모의 대강당을



◇전통문화연수원을 건립중인 강화 무애원 전경.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설봉스님은 사찰이나 불자단체, 고 방에는 참선정진 하는 선승(禪僧)의 도량이 되기를 기원하며

불·가을은 학생들을 위해 학생아 의학습, 여름·겨울은 수련회를 주로 실시한다. 방학동안에는 교사들을 상대로 도예실습과 참선교육도 실시한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연결, 매일 참선 전래놀이 예절 언어순화등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군대에 입영한 5백명의 이등병을 수련시킨데 이어 올해에도 7백명의 군인들을 초청, 무료로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또 타종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불교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예는 흙을 빚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빚는다’는 요지의 도예강의를 불교교리와 접목하여 포교하는 설봉스님은 “도예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통의 우리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새싹불자포교와 전통문화순양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032) 932-5087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우리절 불가 문경 김총사

◇일제시대 31본산의 하나였던 김총사가 출·재가 수행도령의 복원을 위해 중창불사를 하고 있다. 원내는 자광스님.

국내 최대 온돌방 설선당 복원

성철·서암·서옹스님 수행처 요사채·2층누각등 내달 착공

일제시대 50개 말사를 거느렸던 전국 31본산의 하나인 문경 김총사(주지 자광). 한때 성철 서옹 서암스님이 주석했던 수행처로 유명한 김총사에 중창불사의 열기가 뿜어 오르고 있다.

김총사는 이번 중창불사를 계기로 소백산 5대 나한도량과 대도량의 면모를 일신, 스님들의 수행처와 전국사찰이나 불자들에게 수련장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97년 12월 화재로 소실된 설선당(說禪堂)을 비롯하여 요사채 해운암(海雲庵), 누각복원이 본래대로 올라 5월초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김총사는 1억6천만원을 들여 이미 대웅전 서가래와 기와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해운암과 설선당 설계를 끝마친 상태다.

옛 경주강원 설선당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조성된 국내최대의 온돌방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복원되는 설선당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구들을 설치해 오늘날에 다시 수선사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 착공한 60평의 요사채 해운암은 유려한 다자 모양으로 황토로 내부를 마감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와 원형복원이 힘쓰고 있다.

또 2층 목조누각은 38평 규모로 해운암과 설선당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어 불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총사 해운암과 설선당 복원공사에는 국비 6억, 지방비 6억, 사찰예산 5억등 총 17억원이 소요된다.

588년 신라 진평왕때 운달스님이 창건한 김총사는 고승들의 수행처로 이름이 높다. 특히 소나무들이 병충처럼 둘러서 있는 동전은 성철 서옹 서암스님등 조계종 종정스님들이 차례로 거쳐하며 수행하던 토굴이다.

한편 풀아래 사하촌도 50여명의 마을주인이 출가할 정도로 불심이 깊은 마을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김총사 주지 자광스님은 “복원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움준 사부대중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창건이후 7번째 중창불사인 새불사를 계기로 옛 전통을 살려 많은 사부대중이 정진할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금산사 매향의식 재현

1400돌기념 6백년만에...미륵불 하생기원

조선초이후 중단된 매향의식이 금산사에서 재현된다.

미륵신앙의 중심본찰인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개산·1400주년을 맞이하여 10일 오전 10시 매향의식 재현 및 매향의식을 개최한다.

대제배 제막식을 갖는다.

이날의 매향의식은 KBS-TV가 촬영하여 5월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광주교도소 찬불가대회

광주불교승인회 주최

광주불교승인회(회장 김두원)는 3월 31일 광주교도소에서 재소자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5백여명의 재소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김두원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26명의 재소자가 독경 및 찬불가 '다생의 죄악' 등을 발표하며 새롭게 태어날것을 부처님전에 발원했다.

한편 이날 경연대회는 여성불교연합 광주지부가 후원했다.

김원우 기자

김원우 기자

경제난 극복 천도재

광주 광덕사 7-9일

불국역 광덕사(주지 능인)는 10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우리사회에 마음과 평화를 주고 그물처럼 맺어진 인연고리를 풀기위한 영가천도대법회를 개최한다.

불국역(이사장 안진오) 이 사들이 전액 경비를 지원하는 이번 천도재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광덕사 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정진도 갖는다.

불국역 이종표위원장(전남대교수)은 “모든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여 우리 또한 안정과 희망을 얻고자 천도재를 마련했다”며 “동참하여 고통받는 모든생명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덕에서 벗어나 행복함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 652-6050.

김원우 기자

감로사 삼천배 기도

불자 2천여명 동참

부산 감로사(주지 혜흥)는 3월 31일 삼천배 삼천배 참회기도 및 영가천도법회 회향식을 개최했다.

3월27일 입제식을 갖고 5일동안 계속된 삼천배 참회기도에는 2천여명의 불자가 동참했다.

첫날 범어사 前주지 정관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5일동안 진행된 큰 스님 초창법문은 지관스님 해인스님 금담스님 홍선스님등 12명의 법사스님이 감로법문을 했다.

침희회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주지역 4대종교 합동 청소년 작은 음악회 연다

경주지역 4대종교 합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작은 음악감상회를 개최한다. 경주 향림사(주지 법영)는 셋빛교회 성전성당 원불교 경주교당과 함께 17일 오후 4시 경주 예술극장에서 '제 2회 청소년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감상회는 음악전문가 초청하여 해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4대 종교가 마련한 음악회는 청소년들

에게 건전한 여가문화선도와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또 종교를 초월한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서로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향림사주지 법영 스님은 “앞으로 영화상영도 하고 청소년영상제도 개최하는등 청소년포교에 앞장서겠다”고 음악회 개최의지를 밝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이윤호 기자

5년간 장기기증 서약 4155명

생명나눔회 창립 5돌...회원 3천9백명

‘삶을 나누시다, 생명을 나누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94년 첫발을 디딘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가 4월로 창립 5돌을 맞았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눔실천회는 나후에 있던 불교계 복지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의 주요사업은 장기기증자 발굴하고 장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하는 일.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생명나눔실천회가 확보한 장기기증자 서약인 수는 모두 4천155명으로 연평균 829명에 이르며, 이중 111명에게 장기이식을 주선해 새 삶을 찾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몸으로 부딪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왔다. 가두에 나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물론, 기금마련을 위해 하루차집을 열기도 하고, 각 사찰 및 불교단체와 연계해 법회를 개최해 현재 전체 회원수가 3천9백여명이다. 또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병행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치료비나 물품 생필품도 제공했다. 올해 2월부터는 전국 각 사찰을 돌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화장사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장기기증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장기기증자를 발굴과 부족한 예산, 인력도 보다 활발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회는 13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현영우 기자

양산 미타암석굴 균열 누수 심각

보물 998호인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미타암 아미타불 석굴 입상·안치돼 있는 석굴의 천장과 벽면에 금이 가고 물이 스며들어 보수가 시급하다.

31일 양산시에 따르면 통일사시대대 것으로 추정되는 미타암 석아미타불 입상·안치된 석굴(길이 7m 높이 4m)이 최근 자연 풍화와 관광객들로 인해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천장과 벽면 등 동굴내부 곳곳에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해 붕괴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보관중인 입상석불도 누수

로 인해 본모습이 점차 훼손되고 있어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대광명인회 갖바위산행

대구 대광명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8일 제8회 팔공산 관봉(갖바위) 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행에는 대광명인불자회 회원과 장애인불자, 대구개인택시 정비회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 3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053)256-0114. 이윤호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미타부스

01아미타부스는 7-9월 3개월, 비용은 100998원입니다. 6개월부터는 본래의 양자택일 무료로 받습니다. 6개월은 서울역, 시청역, 조계사역, 천호역, 광명역에서 18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미타센터

마스터/위ژه트 김희희 상담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1-228-2358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사(主身)이 사계절에 푸르름(靑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우므로 희생·소멸하여 자식적인 물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람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국(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난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여온 토속사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쳐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증형영양강장(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새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숭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송이버섯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만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증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있지 않은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류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등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증형영양 강장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 원액 2,800ml (700ml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솔선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	--	---

※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내고향 99.1.28 방영)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